

학습습관과 정서문제가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 은 영¹⁾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이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 정서문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학습습관과 정서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초등 6학년 학생 2,210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처리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6학년 학생은 자신의 학습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정서문제는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였고, 삶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자신의 학습습관이 좋고, 정서문제가 적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초등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과 정서문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남학생은 학습습관의 영향력이, 여학생은 정서문제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학습습관 하위변인 중 남학생은 성취가치의, 여학생은 행동통제의 영향력이 컸다. 정서문제 하위변인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우울의 영향력이 컸다. 따라서,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학습습관에 있어 남학생은 성취가치를 높이고, 여학생은 행동통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서문제에 있어 남녀 모두 우울을 줄일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어 : 학습습관, 정서문제, 삶의 만족도, 6학년

* 이 논문은 201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제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2013년 제 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발표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8A02068055).

1)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강사 겸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E-mail : iloveagi@naver.com)

I.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반면, 행복 지수는 그 반대로 보고되고 있다. 2009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은 2위였지만, 주관적 행복감은 최하위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09.5.8).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TIMSS)나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PISA)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력은 최상위였으나 학습흥미와 만족도는 아주 낮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학교 폭력이나 왕따, 학업부담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동안 학업성취에 치우쳐 등한시되었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 동안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혜원, 홍미애, 2007; 박경선, 문혁준, 2013; 박영신, 김의철, 2008; 한지선, 2006). 이에 비해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과 삶의 만족도 수준이 다르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다르지만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고 있다(조성연, 김민, 김혜원, 2011).

그러나, 최근 들어 학업부담이 더 이른 연령부터 시작되고, 또래관계나 가족문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이 증가하였다. 2009년 일 년 동안 자살한 초등학생은 전체 자살 청소년의 3%에 달한다(조성연 등, 2011). 문제행동 발생 연령도 점점 낮아져 청소년 범죄는 저연령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

은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시기는 앞으로의 삶에 장기적이고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고등학생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으므로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중·고등학생보다 더 우선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조성연 등, 2011).

최근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한다(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조기교육의 부작용으로 초등 고학년에 이르면 학습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이는 개인의 정서문제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증가 등으로까지 이어진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경에는 자신의 환경과 신체변화에 민감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어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이주리, 2009). 초등 6학년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교사들은 6학년 담임을 기피한다(경남일보, 2013. 10. 4.).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들은 일탈행위, 반항, 불만족, 집단따돌림, 공격적 성향을 나타내는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생활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6학년의 교과내용은 타학년에 비해 양이 많고 어려워지므로 학생들은 성적향상에 어려움을 겪으며 흥미를 잃게 된다(손형국, 양정호, 2013).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초등 6학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삶의 만족도는 안녕감(well-being)을 이루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개인의 인지적 판단과 정이다(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삶의 만족도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되고(Rojas, 2006), 청소년의 내적 요인과 환경 요인

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Diener & Fujita, 2005).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 또래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이정화, 2005).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으로 는 학습 스트레스(김경숙, 2006), 성적(김옥선, 오운자, 최명구, 2006), 자기효능감(박영신, 김의철, 2008),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유능감(Diener, 1984) 등이 있다. 환경 변인으로 는 교우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가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이현웅, 곽윤정, 2011).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는 주로 개인의 성향 및 자원에 해당하는 변인의 영향력이 크다(이현웅, 곽윤정, 2011)는 점에서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개인 관련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개인 변인은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크게 학습 변인과 정서 변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학습 변인과 관련해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은 입시의 중압감으로 인해 성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취학전 조기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사교육은 초등학생에게 까지 학업부담과 성적경쟁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업성취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상위 변인(이주리, 2009)으로 보고되었다. 높은 학업성취는 초등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임미향, 박영신, 2006; 임미향,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경자, 이영희, 심인옥, 최윤정, 2005), 학습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우울 수

준이 낮았다(Scott et al., 2008).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 의하면 과도한 학업 부담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가 되지만, 노력의 결과물인 학업성취 수준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발달해나가는 시점의 초등 고학년 아동의 경우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변화를 겪으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가정이나 학교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과 부담이 매우 증가하는 시기(권혜진, 성미영, 2013)이므로 학업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성이 높다. 좋은 학습 결과를 위해서는 올바른 학습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습관의 형성이 중요하다. 즉,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공부의 의미를 알고, 평가목적이 아니라 숙달목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지루하더라도 참을 수 있고, 학습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학습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 학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습습관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다(김유미, 박정희, 2006). 학습습관은 주의집중행동, 학습기술 적용행동, 자율학습 행동의 세 하위 요인으로 측정되었다(노석준, 김인숙, 김명선, 이동훈, 2012).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는 중고등 교육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학업성취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학습습관 및 학습태도이다(박수희, 노영순, 2011).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습습관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학습습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정서문제와 관련하여 초등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6-17세 아동 및 청소년의 약 25%가 우울이나 불안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 서울대

병원, 서울시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2005). 특히 우리나라 초등 5, 6학년 학생의 47.9%가 우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매일경제, 2006.8.4).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초등학생들의 우울이나 불안, 주의산만, 공격적·파괴적 행동으로 인한 수업 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한다(이대식, 2003). 지나친 과외학습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자율성이 박탈당할 때의 불안 등은 공격적 행동이나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오인수, 2009). 이에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정서문제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정서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차가 불확실한 유아기에 비해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심리적 측면에서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 삶의 만족도에 있어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삶의 질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선, 문혁준, 2013; 조명환, 1994). 7학년에서 9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Rask, Astede-Kurki, Paavilainen, & Laippala, 2003)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혜원, 홍미애, 2007; 박영신, 김의철, 2008; 한지선, 2006) 때문에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의 성차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상담 현장 내담 아동의 남녀 비율이 7:3 정도로 남자 아동의 어려움이 많다(노치현, 황영희, 1998)는 결과가 있다. 이와 달리 초등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임미향 등, 2006)는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성차에 대한 연

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초등 4~6학년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상호작용, 장기적 사고, 노력이, 여학생의 경우 학업성적, 부모와의 상호작용, 장기적 사고, 자신의 흥미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이현웅, 박윤정, 2011). 남학생은 자율적 행동 또는 또래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여학생은 인간관계나 정서 측면에 의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학습습관의 성차에 있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성취동기는 초등 4~6학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기채영, 홍경자, 2009; 이경남, 2006). 정서문제의 성차를 살펴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Brody, 1985).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절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고(여성가족부, 2010),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다(고정자, 2005; 고현자, 2000). 12, 13세 이후부터 여아는 우울이 증가한 반면, 남아는 여아보다 낮은 수준이거나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Angold, Erkanli, Silberg, Eaves, & Costello, 2002). 또한, 여아는 남아에 비해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고 반응적이므로 더 우울하다(Meadows, Brown, & Elder, 2006; Rudolph, 2002). 이와 달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내면화 문제를 더 많이 느끼며(장은옥, 2011), 성별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차이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다(기광도, 2011)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선행연구 고찰에 근거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과 정서문제를 살펴보고, 이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학습습관은 학습에 대한 기본태도와 관련이 깊은 동기조절과 행동조절 관련 내용으로 하위변인은 성취가치, 숙달목적, 행동통제, 학업시간 관리로 구성되었다. 정서문제 하위변인은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로 구성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사는데 즐겁고, 걱정이 없으며, 행복하다고 생각함을 의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 정서문제 및 삶의 만족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2.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과 정서문제는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초4 패널에 대한 제3차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초4 패널 중 제3차 조사에 응한 초등 6학년 학생 2,210명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은 충화다

표 1. 연구대상의 성별

전체	남자	여자
2,210(100%)	1,165명(52.7%)	1,045명(47.3%)

단계집락표집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16개 시·도를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구분한 후 다시 지역적 근접성에 따라 전국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모집단을 총 27개의 집락으로 나누었다. 이후 각 시·도별 최소 표본 학교 수를 우선 할당한 후 충화다단계집락표집 과정(학생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으로 각 시도별 할당)을 거쳤다. 최종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차 설문

2. 측정도구

학습습관

초등학생의 학습습관 측정을 위한 연구도구는 양명희(2000)의 자기조절 학습능력 측정도구 84문항 중, 김세영(2006)이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문항에서 학습에 대한 기본 태도와 관련이 깊은 동기조절과 행동조절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되었다.

학습습관의 하위변인은 성취가치, 숙달목적, 행동통제, 학업시간 관리이다. ‘성취가치’ 변인은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와 같은 총 7개 문항이다. ‘숙달목적’ 변인은 ‘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더라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와 같은 총 2개 문항이다. ‘행동통제’ 변인은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한다’와 같은

5개 문항이다. ‘시간관리’ 변인은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 계획을 세운다’와 같은 4개 문항이다.

학습습관의 문항 평정은 1점(매우 그렇다)부터 4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학습습관이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습관이 좋음을 나타내도록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단, 학습습관이 좋은 경우에 높은 점수를 주는 쪽으로 역코딩을 하였으므로, 행동통제 5문항 중 마지막 두 문항은 역코딩을 하지 않았다. 학습습관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2와 같으며, 학습습관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2이다. 하위변인별 Cronbach's α 는 성취가치 .90, 숙달목적 .74, 행동통제 .70, 시간관리 .84이다.

정서문제

초등학생의 정서문제 측정을 위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정서문제 하위변인은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이다. 우울 변인은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의 우울 척도 13문항 중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변인은 조봉환과 임경희(2003)의 척도 중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사회적 위축 변인은 김선희와 김경연(1998)의 척도 중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주의집중’ 변인은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와 같은 7개 문항이다. ‘공격성’ 변인은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와 같은 6개 문항이다. ‘신체증상’ 변인은 ‘머리가 자주 아프다’와 같

표 2. 연구 변인의 구성 및 신뢰도

변인	하위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학습습관	성취가치	7	13-1, 4, 7, 10, 13, 16, 18	.90
	숙달목적	2	13-2, 5	.74
	행동통제	5	13-3, 6, 9, 12*, 15*	.70
	시간관리	4	13-8, 11, 14, 17	.84
	전체	18	13-1~18	.92
정서문제	주의집중	7	17-1, 2, 3, 4, 5, 6, 7	.83
	공격성	6	17-8, 9, 10, 11, 12, 13	.84
	신체증상	8	17-14, 15, 16, 17, 18, 19, 20, 21	.87
	사회적 위축	5	17-22, 23, 24, 25, 26	.89
	우울	10	17-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92
	전체	36	17-1~36	.94
삶의 만족도	전체	3	16-1, 2, 3	.86

주. *역코딩 제외 문항.

은 8개 문항이다. ‘사회적 위축’ 변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와 같은 5개 문항이다. ‘우울’ 변인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와 같은 10개 문항이다.

정서문제의 문항평정 역시 1점(매우 그렇다)부터 4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정서 관련 문제행동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문제가 많음을 나타내도록 역코딩하였다. 정서문제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2와 같으며, 정서문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4이다. 하위변인별 Cronbach's α 는 주의집중 .83, 공격성 .84, 신체증상 .87, 사회적 위축 .89, 우울 .92이다.

삶의 만족도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 측정을 위한 연구 도구는 김신영 등(2006)이 사용한 3문항이다. 각 문항의 내용은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이다. 각 문항의 평정은 1점(매우 그렇다)부터 4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즉, 각 문항은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세 문항을 모두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2와 같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86이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초등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 정서문제, 삶의 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 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세 변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초등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과 정서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초등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 정서문제, 삶의 만족도

초등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

초등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은 표 3과 같다. 학습습관의 평균은 2.83이었다. 학습습관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2.56, p < .05$). 남학생의 평균은 2.86, 여학생의 평균은 2.80으로 남학생의 학습습관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학습습관 하위변인의 평균은 성취가치, 숙달목적, 행동통제, 시간관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숙달목적과 행동통제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숙달목적($t = 6.07, p < .001$)과 행동통제($t = 2.17, p < .05$) 측면에서 학습습관이 더 잘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6학년 학생의 정서문제

초등 6학년 학생의 정서문제는 표 3과 같다. 정서문제 전체의 평균은 1.99로 나타나 초등 6학년 학생의 정서문제는 보통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정서문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정서문제 평균은 1.97, 여학생의 평균은 2.02로 나타나 여학생이 정서문제가 조금 더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서문제 하위변인의 평균은 주의집중, 사회적 위축,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의집중,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다. 남학생은 주의집중($t = 5.77, p < .001$)에서 여학생보다 정서문제가 더 많고, 여학생은 신체증상($t = -5.11, p < .001$), 사회적 위축($t = -3.55, p < .001$), 우울($t = -6.25, p < .001$)에서 남학생보다 정

서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 6학년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주의집중이 어렵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정서문제로 인한 신체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사회적 위축이나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다.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표 3과 같다. 초등 6학년 전체 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4점 기준에 3.23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초등 6학년 학생은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며 즐거운 편이라고 생각하였다.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평균은 3.35, 여학생의 평균은 3.09로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표 3. 초등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 정서문제, 삶의 만족도

변인		M(SD)			t
		전체	남	여	
학습습관	성취가치	3.12(.58)	3.12(.60)	3.11(.56)	.34
	숙달목적	2.87(.73)	2.96(.74)	2.77(.72)	6.07***
	행동통제	2.71(.43)	2.73(.47)	2.68(.39)	2.17*
	시간관리	2.64(.69)	2.64(.70)	2.65(.68)	-.48
	전체	2.83(.50)	2.86(.52)	2.80(.47)	2.56*
정서문제	주의집중	2.29(.60)	2.36(.64)	2.21(.54)	5.77***
	공격성	2.03(.61)	2.05(.63)	2.01(.59)	1.37
	신체증상	1.89(.64)	1.82(.62)	1.96(.65)	-5.11***
	사회적 위축	2.04(.75)	1.99(.76)	2.10(.75)	-3.55***
	우울	1.70(.61)	1.63(.58)	1.79(.62)	-6.25***
	전체	1.99(.48)	1.97(.49)	2.02(.48)	-2.18*
삶의 만족도		3.23(.67)	3.35(.64)	3.09(.67)	9.20***

* $p < .05$. *** $p < .001$.

2. 초등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과 정서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과 정서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과 정서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학습습관과 정서문제를 독립변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¹⁾

표 4에서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F = 367.16, p < .001$), 삶의 만족도 총변화량의 25.2%가 학습습관($t = 16.46, p < .001$)과 정서문제($t = -14.43, p < .001$)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학습습관과 정서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습습관은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beta = .33$), 학습습관이 좋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 둘째, 정서문제는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으며($\beta = -.29$), 정서문제가 적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 즉, 학습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고, 정서문제가 적은 초등 6학년 학생은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1) 표 4~표 6에서, VIF는 1에 근접할수록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10을 넘기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다. Durbin - Watson 지수는 2에 가까울수록 잔차 간의 자기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상태를 의미하므로 독립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등 6학년 남학생의 학습습관과 정서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6학년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학습습관과 정서문제를 독립변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표 4에서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초등 6학년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F = 140.55, p < .001$), 삶의 만족도 총변화량의 19.6%가 학습습관($t = 12.08, p < .001$)과 정서문제($t = -7.41, p < .001$)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초등 6학년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학습습관과 정서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습습관은 초등 6학년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beta = .34$), 학습습관이 좋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 둘째, 정서문제는 초등 6학년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으며($\beta = -.21$), 정서문제가 적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

초등 6학년 여학생의 학습습관과 정서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6학년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학습습관과 정서문제를 독립변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표 4에서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초등 6학년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F = 246.44, p < .001$), 삶의 만족도 총변화량의 32.4%가 학습습관($t = 10.72, p < .001$)과 정서문제($t = -13.52, p < .001$)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 4. 초등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과 정서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	B	β	t	R ²	F	VIF	Durbin-Watson
전체	(상수)	2.84		27.18***				
	학습습관	.42	.33	16.46***	.252	367.16***	1.10	1.98
	정서문제	-.39	-.29	-14.43***			1.10	
남자	(상수)	2.73		20.03***				
	학습습관	.40	.34	12.08***	.196	140.55***	1.14	1.93
	정서문제	-.27	-.21	-7.41***			1.14	
여자	(상수)	3.06		19.80***				
	학습습관	.40	.30	10.72***	.324	246.44***	1.19	1.99
	정서문제	-.53	-.38	-13.52***			1.19	

*** $p < .001$.

.001)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초등 6학년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정서문제와 학습습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습습관은 초등 6학년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beta = .30$), 학습습관이 좋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 둘째, 정서문제는 초등 6학년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으며($\beta = -.38$), 정서문제가 적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

위와 같은 결과는 초등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과 정서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초등 6학년 남학생은 정서문제보다 학습습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고, 여학생은 학습습관보다 정서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초등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과 정서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습관의 하위변인이 무엇이며, 그 영향력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학습습관의 하위변인인 성취가치, 숙달목적, 행동통제, 시간관리를 독립변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표 5에서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F = 123.93, p < .05$), 삶의 만족도 총변화량의 18.4%가 성취가치, 행동통제, 숙달목적, 시간관리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학습습관 하위변인은 성취가치(t

표 5. 초등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	B	β	t	R ²	F	VIF	Durbin-Watson
전체	(상수)	1.61		20.80 ^{***}				
	성취가치	.20	.17	6.36 ^{***}			1.98	
	행동통제	.18	.14	5.52 ^{***}	.184	123.93 [*]	1.76	1.98
	숙달목적	.13	.14	5.24 ^{***}			1.97	
	시간관리	.06	.06	2.33 [*]			1.75	
남자	(상수)	1.92		18.62 ^{***}				
	성취가치	.27	.26	7.28 ^{***}	.160	73.15 ^{***}	1.69	1.95
	시간관리	.11	.12	3.34 [*]			1.71	
	행동통제	.11	.09	2.69 [*]			1.59	
여자	(상수)	1.30		11.44 ^{***}				
	행동통제	.29	.23	6.36 ^{***}	.213	93.65 ^{***}	1.70	1.91
	성취가치	.22	.19	5.18 ^{***}			1.68	
	숙달목적	.12	.13	3.57 ^{***}			1.76	

* $p < .05$. *** $p < .001$.

= 6.36, $p < .001$), 행동통제($t = 5.52$, $p < .001$), 숙달목적($t = 5.24$, $p < .001$), 시간관리($t = 2.33$, $p < .05$)로 나타났다. 초등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 하위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성취가치, 행동통제, 숙달목적, 시간관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취가치는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beta = .17$), 성취가치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 둘째, 행동통제는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beta = .14$), 행동통제를 잘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 셋째, 숙달목적은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beta = .14$), 숙달목적 지향적이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 넷째, 시간관리는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beta = .06$), 시간관리를 잘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 즉, 문항의 내용을 고려할 때 초등 6학년 학생은 학교공부가 중요하고 나의 성장이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수록, 공부에 지루하더라도 통제를 잘 하여 계획한 것을 마칠수록, 실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을 좋아하는 숙달목적 지향성이 높을수록, 목표를 분명히 하고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업시간 관리를 잘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초등 6학년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습관의 하위변인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초등 6학년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성취가치, 숙달목적, 행동통제, 시간관리를 독립변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표 5에서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F = 73.15, p < .001$), 삶의 만족도 총변화량의 16%가 성취가치, 시간관리, 행동통제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초등 6학년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학습습관 하위변인은 성취가치($t = 7.28, p < .001$), 시간관리($t = 3.34, p < .05$), 행동통제($t = 2.69, p < .05$)로 나타났다. 학습습관 하위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성취가치, 시간관리, 행동통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취가치는 초등 6학년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beta = .26$), 성취가치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 둘째, 시간관리는 초등 6학년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beta = .12$), 시간관리를 잘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 셋째, 행동통제는 초등 6학년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beta = .09$), 행동통제를 잘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 따라서 6학년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습관 주요 변인은 성취가치로 볼 수 있다.

초등 6학년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습관 하위변인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초등 6학년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성취가치, 숙달목적, 행동통제, 시간관리를 독립변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표 5에서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F = 93.65, p < .001$), 삶의 만족도 총변화량의 21.3%가 행동통제, 성취가치, 숙달목적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초등 6학년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학습습관 하위변인은 행동통제($t = 6.36, p < .05$), 성취가치($t = 5.18, p < .001$), 숙달목적($t = 3.57, p < .001$)으로 나타났다. 학습습관 하위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행동통제, 성취가치, 숙달목적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행동통제는 초등 6학년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beta = .23$), 행동통제를 잘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 둘째, 성취가치는 초등 6학년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beta = .19$), 성취가치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 셋째, 숙달목적은 초등 6학년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beta = .13$), 숙달 목적을 지향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 따라서 6학년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습관 주요 변인은 행동통제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학습습관 하위변인 중 6학년 남학생의 경우 성취가치가, 여학생의 경우 행동통제가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성차를 나타낸다. 또한, 학습습관 하위변인 중 남학생은 성취가치, 시간관리, 행동통제가, 여학생은 행동통제, 성취가치, 숙달목적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초등 6학년 학생의 정서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문제 하위변인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을 독립변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표 6에서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F = 298.36, p < .001$), 삶의 만족도 총변화량의 28.9%가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서문제 하위변인은 우울($t = -24.42, p < .001$), 공격성($t = 2.75, p < .05$), 사회적 위축($t = 2.21, p < .05$)으로 나타났다. 정서문제 하위변인이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에 비해 공격성이나

사회적 위축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우울은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으며($\beta = -.59$), 우울 수준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낮다. 따라서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문제 관련 주요 변인은 우울로 볼 수 있다. 즉, 걱정이 많고 외롭다고 느끼며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고 잘못된 일의 원인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우울함은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정서문제이다.

다음으로, 초등 6학년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문제 하위변인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초등 6학년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을 독립변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표 6에서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삶

표 6. 초등 6학년 학생의 정서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	B	β	t	R^2	F	VIF	Durbin-Watson
전체	(상수)	4.13		87.89***				
	우울	-.65	-.59	-24.42***	.289	298.36***	1.50	1.97
	공격성	.06	.06	2.75*			1.33	
	사회적 위축	.04	.05	2.21*			1.32	
남자	(상수)	4.08		72.89***				
	우울	-.55	-.50	-13.81***	.194	139.81***	1.65	1.96
	신체증상	.09	.09	2.48*			1.21	
여자	(상수)	4.27		85.02***	.372	614.88***		1.98
	우울	-.66	-.61	-24.80***			1.70	

* $p < .05$. *** $p < .001$.

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F = 139.81, p < .001$), 삶의 만족도 총변화량의 19.4%가 우울과 신체증상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초등 6학년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서문제 하위변인은 우울($t = -13.81, p < .001$)과 신체증상($t = 2.48, p < .05$)으로 나타났다. 초등 6학년 남학생의 정서문제 하위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우울, 신체증상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에 비해 신체증상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우울은 초등 6학년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으며($\beta = -.50$), 우울 수준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낮다. 따라서 초등 6학년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문제 관련 주요 변인은 우울로 볼 수 있다.

초등 6학년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문제 하위변인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을 독립변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표 6에서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F = 614.88, p < .001$), 삶의 만족도 총변화량의 37.2%가 우울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서문제 하위변인은 우울($t = -24.80, p < .001$)로 나타났다. 우울은 초등 6학년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으며($\beta = -.61$), 우울 수준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낮다. 6학년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문제 관련 주요 변인은 우울로 볼 수 있다.

초등 6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

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정서문제는 공통적으로 모두 우울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볼 때, 초등 6학년 남학생의 경우, 우울과 신체증상이, 여학생의 경우 우울만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차가 있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우울을 제외한 하위변인의 영향력이 극히 미비하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정서문제 중 우울 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표 3에서 정서문제 하위변인의 성차는 주의집중,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변인에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주의집중을 잘 못하지만, 주의집중이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여학생의 경우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변인에서 남학생보다 정서문제가 컸지만 신체증상이나 사회적 위축이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서문제 하위변인의 성차는 있지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문제 하위변인은 남녀 모두 우울 변인임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초등 4학년 패널의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 정서문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학습습관과 정서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초등 6학년 학생이 스스로 평가한 학습습관은 보통 이상의 수준에 해당한다. 초등 6학년 학생은 학습습관 중 특히 성취가치 부분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 즉, 초등 6학년 학생은 학교생활이 자신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교 공부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6학년 학생이 학습과 관련된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을 보여준다. 숙달목적 지향성 역시 높게 나타나 6학년 학생들이 실수를 하거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뭔가 배우는 것을 즐기기를 좋아함을 보여준다. 시간관리나 행동통제 측면에서도 스스로를 높은 점수로 평가하여, 6학년 학생들이 목표와 학습 계획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습관 4개 하위변인에 대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는 초등 6학년 학생은 자신의 학습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함을 보여준다. 초등 6학년 학생이 현재 긍정적 학습습관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태도를 학습부담이 가중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도 지속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정책이 필요하다.

학습습관의 성차에 있어 남학생의 학습습관 점수가 더 높다는 것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자신의 학습습관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남학생이 숙달목적이 더 높고 행동통제가 더 강하게 이루어진다는 결과는 6학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도전성향이 더 강하고 성취를 위해 행동통제를 더 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숙달목적은 실수를 하더라도 무언인가를 배울 수 있는 어려운 내용에 도전

하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평가목적과 차이가 있다. 행동통제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어도 계획한 것을 끝까지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하위변인에 근거해 남학생의 학습습관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취가치에 성차가 없다는 연구 결과는 아동의 성취동기에 성차가 없다(이은진, 2007)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여학생의 성취동기가 남학생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기재영, 홍경자, 2009; 이경님, 2006)와는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학업성취 수준은 세계 최고이나 행복감은 최저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상황에 관련시켜 볼 수 있다. 즉, 학업성취라는 결과 위주의 사고 대신 긍정적 학습태도를 위한 좋은 학습습관의 형성을 도울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초등 시기부터 교과교육 외에 스스로 시간관리나 행동통제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평가목적이 아니라 숙달목적에 더 가치를 두며, 학교 공부가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스스로 평가한 정서문제는 보통 수준에 해당한다. 정서문제는 주의집중, 사회적 위축,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의 순으로 나타나 6학년 학생이 경험하는 가장 큰 정서문제는 주의집중으로 볼 수 있다. 즉, 6학년 학생은 주의가 금방 산만해지고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를 싫어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내는 주의집중 부족을 가장 큰 정서문제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초등학교의 주의집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즉, 초등학교에게 집중력 향상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집중력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의집중에 비해 우울은 정서문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삶의 만족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하위변인이라는 점에서 6학년 학생의 우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서문제의 성차에 있어, 초등 6학년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주의집중이 어렵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정서문제로 인한 신체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사회적 위축이나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다. 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절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고(여성가족부, 2010),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정자, 2005; 고현자, 2000)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Brody, 1985), 여아가 남아에 비해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고 반응적이므로 더 우울하다(Meadows et al., 2006; Rudolph, 2002)는 점에서 여학생의 정서문제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즉, 6학년 학생은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며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조사 대상이 스스로 학습습관이 좋고 정서문제가 크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6학년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학습습관 점수가 더 높고, 정서문제 점수는 더 낮으며 삶의

만족도는 더 높다.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자신의 학습습관이나 정서 및 삶의 만족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조명한, 1994; Rask et al., 2003)와 일치하나, 삶의 만족도에 성차가 없다는 결과(임미향 등, 2006)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남학생의 학습습관이 더 좋고, 정서문제가 더 적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와 별개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학습습관이나 정서문제, 삶의 만족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초등 6학년 학생의 학습습관과 정서문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즉, 6학년 학생은 학습습관이 잘 형성되고 정서문제가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남학생은 정서문제보다 학습습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에 비해 여학생은 학습습관보다 정서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초등 6학년 남녀 학생의 학습습관 하위변인 중 성취가치가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행동통제, 숙달목적 및 시간관리 역시 일부 영향을 준다. 하위변인 중 남학생의 경우 성취가치가, 여학생의 경우 행동통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초등 6학년 남녀 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남학생은 성취가치를 높이고, 여학생은 행동통제를 잘 할 수 있는 학습습관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높은 학업성취가 삶의 질을 높이고(임미향, 박영신, 2006; 임미향 등, 2006; 한경자 등, 2005), 학습

관련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우울 수준이 낮다 (Scott et al., 2008)는 연구와 관련해 볼 때, 초등 6학년 학생이 좋은 학습습관을 형성하여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울은 6학년 학생이 스스로 인식하는 정서 문제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하위변인이다. 그러나 정서문제 하위변인 중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우울 변인의 설명력이 가장 크다. 이는 초등학생의 다양한 정서문제 중 우울 관리가 삶의 만족도 향상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약 25%가 우울이나 불안의 문제를 경험하고(서울특별시 외, 2005), 학생들의 우울이나 불안, 주의산만, 공격적·파괴적 행동으로 인해 선생님들이 수업 진행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이대식, 2003)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초등 6학년 남녀 학생의 삶의 만족도 향상은 우울을 줄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우울의 수준 자체가 높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정서문제 하위변인 중 우울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우울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초등 6학년 학생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걱정을 많이 하고 외롭다고 생각하며 장래에 희망이 없고 잘못된 일을 내 탓으로 돌리는 우울 성향을 줄여 주기 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친구, 교사,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초등학생의 우울을 줄여 줄 수 있다(조한익, 2011). 긍정심리학 기반의 행복증진 상담 교육 프로그램 또한 초등학생의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학

교 교육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행복 일기 쓰기’ 및 ‘행복 실천법’을 생활화할 수 있다(김광수, 고영미, 2011).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들어 초등 4학년이면 사춘기가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정서문제는 6학년 보다 더 이른 연령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초4패널의 경우, 3차년도 즉 6학년부터 정서문제가 조사되어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정서문제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중학교 2학년 시점이 사춘기 문제 행동의 절정을 이룬다는 점에서 6학년부턴으로도 지속하여 정서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적절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개인 변인 위주로 살펴보았는데, 부모나 또래관계와 같은 환경 변인의 영향을 추가하여 살펴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초등학생이 스스로 지각한 학습습관과 정서문제 및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부모나 교사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남학생의 학습습관이 더 좋고, 정서문제가 더 적은 것인지 아니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학습습관이나 정서문제, 삶의 만족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사회적 우려와 달리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때 학습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고, 정서문제가 많지 않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본격적 사춘

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학습습관에 있어 남학생의 경우 학교공부의 의미를 부여하는 성취가치를 높이고, 여학생의 경우 행동통제를 도울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서문제에 있어서는 우울 성향을 줄여줄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밝혔다.

과도한 사교육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서 문제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학습 그 자체가 초등학교 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성취가치를 향상시키고 행동통제를 잘하는 등 올바른 학습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구체적 지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남일보 (2013.10.4). 초등학교 선생님도 “6학년은 힘들어” <http://gnnews.co.kr/news/view.html?section=191&category=192&item=&no=185302>에서 2014년 4월 5일 인출.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고현자 (2000).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및 가족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혜진, 성미영 (2013). 초등학교 학생의 정서문제와 학교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3(11).
- 기광도 (2011). 초등학교 비행의 성차분석: 자기통제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2(2), 5-30.
- 기재영, 홍경자 (2009). 초등학교 학생의 인지, 행동, 정서적 자기격려 연구: 성과 학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1), 129-142.
- 김경숙 (2006). 초등학교 학생의 과외학습 스트레스가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수, 고영미 (2011). 긍정심리학 기반의 행복 증진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생의 행복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22(3), 129-52.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 요인 탐색 및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 건강*, 8(20), 415-442.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세영 (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동 유형, 자기통제력, 자기조절 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승렬, 최지영, 이가영 (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검증.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6). 초등학생의 일 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아동교육, 15(1), 195-207.
- 김유미, 박정희 (2006). 학습기술 향상 집단 프 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습관과 학 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학연구, 13(1), 1-23.
- 김혜원, 홍미애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 연구, 14(2), 269-297.
- 노석준, 김인숙, 김명선, 이동훈 (2012). 초등학 교 고학년 학생의 과외학습 스트레스와 정서행동요인이 학습태도와 학습습관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분석. 교육종합연구, 10(2), 45-68.
- 노치현, 황영희 (1998). 내담아동의 주문제. 놀 이치료학회지, 19(3), 675-692.
- 매일경제 (2006.8.4). 초등생 20% 정서장애 - 엄마..... 나 우울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9&aaid=0000521258>에서 2014년 4월 3일 인출.
- 박경선, 문혁준 (2013). 중학생의 완벽주의, 가 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가 분노표현방 식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0(3), 57-80.
- 박수희, 노영순 (2011). 자아개념과 태도 및 학 습습관이 수학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 한국학교수 학회논문집, 14(2), 199-213.
- 박영신, 김의철 (2008).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 과 인간관계. 교육심리연구, 22(4), 801-836.
-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 서울대병원, 서 울시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2005). 2005 년도 역학사업보고서 -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조사. 서울시소아청 소년정신보건센터.
- 세계일보 (2009.5.8). 우울한 한국 청소년...‘행 복감’ OECD 꼴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9/05/08/20090508003162.html>에서 2014년 1월 10일 인출.
- 손형국, 양정호 (2013).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 사의 교직생활 탐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0(2), 413-437.
- 신 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 연구, 17(9), 131-150.
- 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 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 여성가족부 (2010). 2010 청소년백서. 서울: 여 성가족부.
- 오인수 (2009). 스트레스와 학교 괴롭힘 행동 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과 공격성의 매개 효과. 초등교육연구, 22(2), 49-70.
- 이경님 (2006).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 회지, 24(5), 161-174.
- 이대식 (2003). 교사들이 지각한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와 대처방안효과. 정서행동 장애연구, 19(4), 283-302.
- 이은진 (2007).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아 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 (2005). 초등학생의 행복감 측정을 위한

- 도구의 개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주리 (2009). Data Mining을 이용한 초등학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 탐색. *아동학회지*, 30(1), 11-25.
- 이현웅, 곽윤정 (2011).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변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8(7), 59-83.
- 임미향, 박영신 (2006).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삶의 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사회문제 심리학회 구두발표*.
- 임미향, 박영신, 김의철 (2006). 초등학교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15(1), 53-67.
- 장은옥 (2011).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 변인과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27(2), 369-387.
- 조명한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서울대학교)*, 16(2), 51-94.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성연, 김민, 김혜원 (2011). 부모와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공부압력, 성공압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1), 47-67.
- 조한익 (2011).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희망, 우울증 및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25(1), 153-174.
- 한경자, 이영희, 심인옥, 최윤정 (2005).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 영역과 속성들. *아동간호학회지*, 11(2), 167-178.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지선 (2006). 가족기능 중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기능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자녀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gold, A., Erkanli, A., Silberg, J., Eaves, S. L., & Costello, E. J. (2002). Depression scale scores in 8-17-year-olds: Effects of age and gende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8), 1052-1063.
- Brody, B. K. (1985).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development: A review of theories and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53, 102-149.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 Fujita, F.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Meadows, S. O., Brown, J. S., & Elder, G. H. (2006). Depressive symptoms, stress, and support: Gendered trajectorie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1), 93-103.

- Rask, K., Astede-Kurki, P., Paavilainen, E., & Laippala, P. (2003). Adolescent subjective well-being and family dynamics. *Journal of Caring Science*, 17(1), 129-138.
 - Rojas, M. (2006). Life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in domains of life: Is it a simple relationship?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4), 467-497.
 - Rudolph, K. D. (2002).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responses to interpersonal stres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0(3), 3-13.
 - Scott, W. D., Dearing, E., Reynolds, W. R., Lindsay, J. E., Baird, G. L., & Hamill, S. (2008). Cognitive self-regulation and depression: Examin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goal characteristics in youth of a northern plains trib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8(2), 379-394.
- 1 차원고접수 : 2014. 04. 14.
수정원고접수 : 2014. 05. 13.
최종게재결정 : 2014. 06. 03.

The Influence of Study Habits and Emotional Problems Regarding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Kim, Eun-Young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imed (1) to investigate the study habits, the emotional problems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2) to examine whether the study habits and the emotional problems affects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This research exercise analyzed the data of the 3rd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Research(2010). The subjects comprised 2,210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means, standard deviations, t-tes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generally believed that they possess good study habits. The level of their emotional problems was about averag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was high. Second, the study habits and the emotional problems affected their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mostly affecte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As a result, the educational support systems which improve both boys' achievement motives and girl's behavior control and reduce their depression need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Keywords: study habits, emotional problems, life satisfaction, sixth graders